영광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지난 12일부터 조정된 수도권외 지역 방역 조치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일, 군청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정된 방역 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 추세와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는 강화하고, 수도권은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으며, 12일 0시부터 조정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외 지역의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은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11월 13일~)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국공립 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0종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격렬한 GX류 집단운동,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가능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권장 등이다.

김준성 군수는 "비록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해 방역조치를 시행하나, 여전히 수도권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군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군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 및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지금보다 더 군민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나주시,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 9월 24일부터 16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나주시 관내 거주자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까지 나주시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인 16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로 보내면 된다.

구비 서류는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를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임신부 확인 서류,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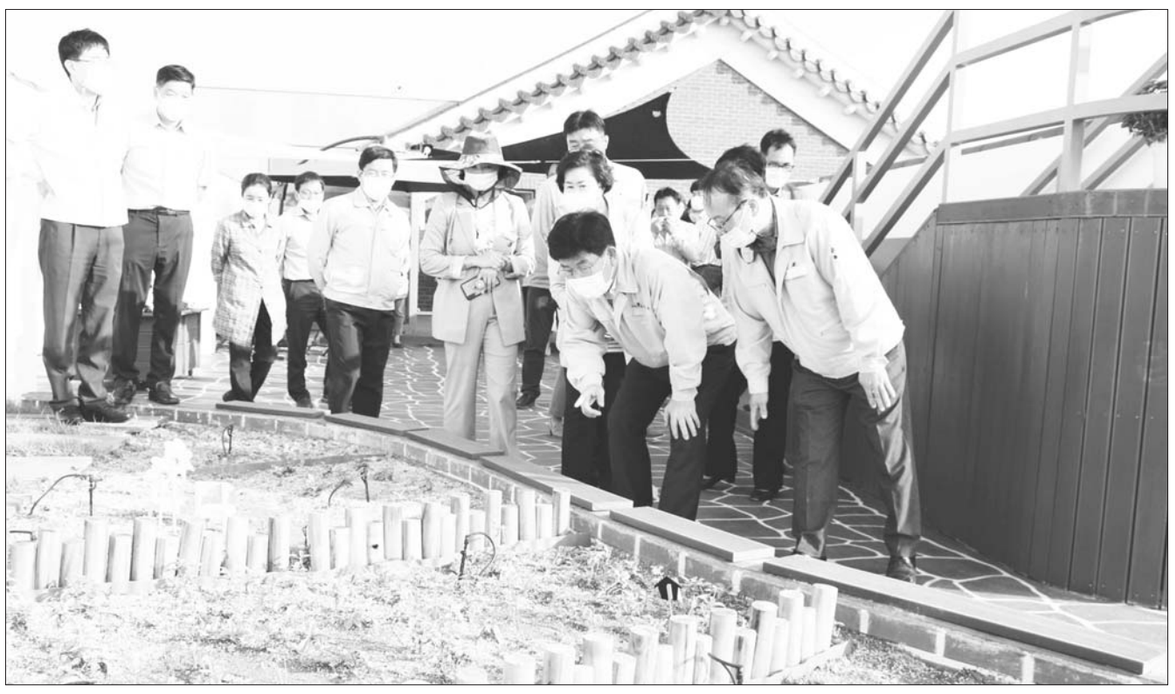
배우자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꼭 숙지해 우리 지역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민원콜센터(061-339-8114), 보건소 출산장려팀(061-339-2174)로 하면 된다.

/나주=서성택 기자



나주시가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에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텃밭정원 개장

농업기술센터 옥상 500㎡에 텃밭상자·미니카페 등 휴식 공간 마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농업기술센터 건물 옥상에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12일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3층 옥상에 조성한 밭정원 '꽃구름' 개장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공간 조성은 도시농업 인프라 확대 및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영도시 농업농장 △실내식물 조경시설 △옥상텃밭 조성 등을 추진한다.

시는 2년 연속 공모 선정에 힘입어 지난해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옥상 공간 500㎡(총면적 1080㎡)에 텃밭정원을 조성했다.

국비 등 사업비 7800만원이 투입된 옥상텃밭정원은 '기역'(ㄱ)자 형태로 채소와 허브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텃밭상자와 테이블과 벤치 등 휴식 기능을 갖춘 아담한 카페 공간이 마련됐다.

또 기존 높은 담벼락에 가려졌었던 확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옥상 모서리 공간에는 데크형 전망대가 설치돼 눈길을 끈다.

명칭인 '꽃구름'은 꽃과 구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개장식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텃밭정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내방객들을 위한 여가·쉼터 공간이자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확장시켜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화순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재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독감 백신 유통 문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13일부터 차례대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별 접종은 ▲만 13~18세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19일부터 ▲만 62~69세 어르신은 26일부터 시작한다.

예방접종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접종할 수 있다.

화순군은 국가 무료 예방접종과 별도로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다.

추가 무료 접종 대상자는 만 60~61세(1959년 1월 1일~1960년 12월31일) 성인, 만 19~59세 주민 중 ?기초생활(생계·주거)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대상자다. 대상자 중 화순읍 거주자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화순군민회관(남산공원)에서 접종하면 되고, 한천면행정복지센터 등 12개면 거주자는 해당 보건지소의 자체 일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과 대상자 증빙자료(생계·주거 급여증명서, 차상위 장애인·자활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해당 보건지소의 접종 일자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지역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일정을 접종대상자와 의료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독감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접종 일정에 맞춰 독감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061-379-5307, 5352, 5354)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담양군,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내연기관 차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오는 19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등이며 세대(기업)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이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구매 예정자는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조·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 및 청구를 대행한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차종별 보조금액은 군청 생태환경과(061-380-3087)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 담양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est1@

장성군, 관광지·공공시설 운영 재개

장성군이 지역 내 관광지를 다시 개방하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로 인해, 정부가 민생경제 부양을 위해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장성호 수변길을 비롯해 워라밸돔경기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은 지난 12일부터 문을 열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운영은 사전 준비를 거쳐 13일부터 재개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비롯한 각종 집합행사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개최한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 운영도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과 출입 전 발열 확인, 출입명부 작성, 타인과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위반한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가되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장성=유광종 기자 hanjae365@